

가짜뉴스는 어떻게 여론을 흔드는가

가짜뉴스의 고고학

최은창 지음

요즘 방송 뉴스에서 자주 다뤄지는 코너 가운데 '팩트 체크'가 있다. 그만큼 조작된 정보가 뉴스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는 얘기다. 뉴스에서 팩트를 확인하는 팩트체크가 시작되고 전문적인 팩트체커가 등장한 것은 지난 1923년이다. '타임' 매거진 창립자 비서였던 낸시 포드가 팩트를 체크했다. 그는 뉴욕시 공공도서관에서 기사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일일이 대조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1920년대에도 여전히 가짜 뉴스가 일상적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덩달아 가짜 뉴스가 진짜 정보처럼 가공돼 유포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휘발성 있는 사건이 벌어지면 하루에만도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진다. 그 가운데는 사실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가 뉴스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유포된다.

로마 시대부터 소셜미디어 시대까지 허위정보는 어떻게 여론을 흔들어왔는지, 가짜 뉴스의 역사를 다룬 책이 발간됐다. '사실인터넷이 바꾸는 세상'의 저자이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문가인 최은창 씨가 펴낸 '가짜뉴스의 고고학'은 가짜뉴스 현장에서 저널리즘의 책임을 묻는다.

역사적으로 가짜뉴스 가운데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조지프 맥카시 상원



가짜뉴스의 고고학

의원의 발언이었다. '1950년대 미국 정부 고위직에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 있다'는 발언으로 정국이 발칵 뒤집혔다. 나중에 청문회에서 그는 근거 없는 혐의

만 늘어놓다가 역풍을 맞았다. 저자에 따르면 신문과 TV는 가짜 뉴스 발원지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같은 뉴 플랫폼을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데다 정파적 편견과 자극적 소재만을 다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개인들이 만든 정파적 콘텐츠는 기존 언론의 보도를 토대로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6년 미 대선 당시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가짜 뉴스가 많이 유포됐다. 대부분은 이를 근거로 가짜뉴스 덕분에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여겼다. 그러나 조사 결과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가짜뉴스보다 기존 언론의 보도 행태가 트럼프 승리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기존 미디어들이 트럼프에 대해 보도한 내용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정책을 다뤘다. 그러나 할러리에 대해서 대부분 스캔들을 부각해 보도했고 이 차이가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016년 미 대선 당시 마케도니아 수도 시 벨레스에서 한 청년이 엄청난 양의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AP뉴스 기자와 인터



정치적 사회적으로 휘발성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지지만 그 가운데는 가짜 뉴스도 적지 않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뷰를 한 청년의 말이 이렇다. "진짜 뉴스인지, 가짜뉴스인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난 돈을 벌거든요. 가짜뉴스 웹사이드를 운영하면 하루에 2000달러는 벌어요."

가짜뉴스 뿐 아니라 이들의 주 '무대' 또한 돈을 벌지 않았을까? 플랫폼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검색 정보를 토대로 이들을 붙잡아준다.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플랫폼이 게시물의 진위여부보다 수익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언론사 웹사이트보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접하고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링크 페이지가 그 역할을 한다. 분명한 것은 영향력이 크면 책

임 또한 크다. 가짜뉴스가 사회문제에 부당한 작금에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영향력에 맞게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허위정보가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민주주의 취약점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 정확한 보도 관행, 팩트체킹의 강화, 뉴스 정보에 대한 비판적 수용도 중요하다. 진정한 해결책은 개인 발원자를 추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위정보가 전달되고, 증폭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이 되는 플랫폼의 역할에서 찾는 편이 현명한 것이다."

<동아시아·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인간의 모든 죽음 = '죽음'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117개의 키워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자살, 타살, 사고사, 고독사, 존엄사, 그리고 아동의 죽음부터 노인의 죽음까지 또 현대인의 죽음의 양상, 각종 질병 및 생활습관과 죽음과의 관계를 다뤘다. 또한 죽음의 유형과 생애주기별 죽음의 특징, 그리고 치매·간병·호스피스·상장례·임종과 사별 등 죽음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담겨 있다. <서해문집·2만2000원>

▲대지의 슬픔 =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12개의 짙막한 이야기들로 구성됐다. 유명한 총잡이이자 쇼맨이었던 버펄로 빌은 공연 '와일드 웨스트 쇼'에 인디언을 출연시켜 주목을 받았다. 하루에 수만 명의 관객을 모으고, 미국을 넘어 유럽까지 진출했던 와일드 웨스트 쇼를 통해 서부 개척 시대 인디언들의 수난사와 초창기 쇼 비즈니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열린책들·1만2800원>

▲스피닝 = 미국 아이스너상 수상작이다. 작가가 스물한 살 때 쓰고 61년 책으로 12년 동안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살았던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피겨 스케이팅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겪는 폭력과 따돌림, 첫사랑, 커피아웃 등의 사건들을 담담하게 서술하며 환상스러운 성장기의 문턱을 넘어온 이들에게 공감



을 불러일으킨다. <창비·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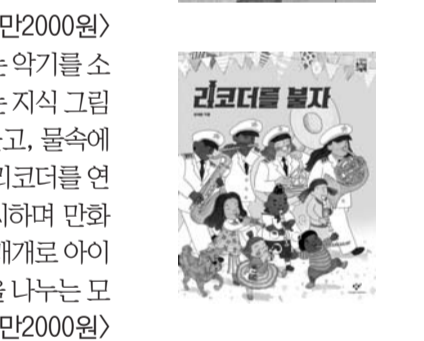
▲아마존 뱅크가 온다 = 아마존이 선도하고, 알리바바와 텐센트, 라인-야후재팬 등이 주도하는 테크놀로지 기업과 기존 금융기관의 전쟁을 파헤친다. '중국을 세계 핀테크 대국으로 만든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전략은 무엇인가?', '싱가포르 DBS 은행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은행으로 거듭난 비결은 무엇인가?', '새로운 금융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2025년 차세대 금융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21세기북스·1만9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세고 재고 찾아보는 숫자 동물원 = 지구에 사는 2826마리의 크고 작은 동물에 관한 정보를 담은 책이다. 대왕고래는 몸무게가 보통 130톤쯤 되고 몸길이는 약 30미터로 시네마세 대와 비슷하다. 또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곤충인 마이크로총재벌은 몸 길이가 0.2~0.5mm다. 이처럼 길이와 무게, 부피를 재는 단위로 동물들을 살펴보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숫자나 단위와 친해질 수 있도록 했다. <책읽는곰·1만4000원>

▲하늘을 나는 고양이 마리 = 주인공 마리는 검은 고양이들의 대회에 나가고 싶어한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 흰 고양이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 등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속에서 고민한다. 마리는 결국 반대에 저항하며 꿈을 향해 나아간다. 책은 마리를 통해 꿈이라는 주제를 흥미롭고 진지하게 풀어내며,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전한다. <뜨인돌어린이·1만2000원>

▲리코더를 불자 = 어린이에게 리코더라는 악기를 소개하고 리코더 부는 법을 재미있게 알려 주는 지식 그림책이다. 거꾸로 매달려서 불고, 달리면서 불고, 물속에 연 주하는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만화적 구성으로 재미있게 표현했다. 리코더를 매개로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즐거운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다채롭게 펼쳐 보인다. <창비·1만2000원>



'책+우정+문화공간+서원' 꿈 꾸는 12년 역사 갈무리

길담서원, 작은 공간의 가능성

이재성 지음

언젠가 서울 길담서원(대표 박성준)에서 피아노 토크를 진행하게 된 피아니스트 조현영씨가 참 의미있는 공간에서 연주하고 강요한다며 뿌듯해 하던 기억이 난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길담서원은 그런 곳이다. 단순히 책을 파는 서점을 넘어, 사람들의 정신을 살피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 서로 성장해가는 공간이다.

'책+우정+문화공간+서원'을 꿈 꾸는 길담서원의 12년 역사를 갈무리한 책 '길담서원, 작은 공간의 가능성'이 나왔다. 저자는 길담서원 학예실장으로서 일하며 다양한 행사를 기획·진행·기록하며 공부하고 있는 이재성씨다.



길담서원 작은 공간의 가능성

2008년 2월 25일 일명 경제 대통령이 인왕산 아래 청와대에 들어가는 날, 우리나라가 가벼워지는 것을 염려해 청와대 옆에 작은 문진을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길담서원을 열었다. 스스로 길을 잃었고 목이 말라 우물쭈물 찻다며 나와 같이 목마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갈 공간이기에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3000여권의 책과 차, 피아노 등이 놓인

서점은 '이 곳을 찾는 모든 이가 주인공'이다. 서점과 인연을 맺은 이들은 '호칭은 민주주의'라는 칼럼을 쓰기도 한 박 대표의 뜻에 따라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별명을 부른다. 박성준 대표는 '소년', 이재성 실장은 영화 '일 포스티노'에서 따온 '보스피노'다.

시민들이 스스로 책방 겸, 공부방, 미술관, 공연장, 놀이터, 쉼터 등으로 다채롭게 이용하는 '길담서원' 스토리는 흥미롭다. 우선 여기서 이뤄지고 있는, '책을 기반으로 정심과 몸의 균형을 이루는' 각종 공부 모임의 면면이 다채롭다. 마르크스 '자본' 읽기 모임, '녹색평론' 읽기 모임, 자서전 읽기 모임, 경제공부모임, 시민과 학공부모임, 헤겔 정신현상학 강독모임, 고전을 영어·독일어·프랑스어 원서로 읽는 모임 등이 눈에 띈다. 또 차와 바느질

도구를 곁에 두고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함께 읽는 바느질 인문학, 청소년들이 '빨강머리 앤'을 영어 원서로 읽으며 드로잉하고 산책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엄마들도 함께 시작한 '엄마앤e모임' 등도 흥미롭다.

서원 한편에 2009년 공간을 마련한 '한뼘 갤러리' 개관전 관련 대목에서는 반가운 이름도 보였다. 전시 기획에 도움을 준 독립큐레이터 전승보, 현재광주서립미술관장이다. 개관전 행사 때는 이태호 명지대 교수가 겸재가 태어나서 평생 살았던 서촌(서점이 자리한 곳이다)에서 겸재와 세잔을 강요했고 전 관장은 현대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후 갤러리에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후원전, 윤석남 드로잉전 등 다양한 전시가 열렸다.

길담서원은 올해 초남 공주도 장소를 옮겨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한다. <글리·1만7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 정 공 고

본지 2020년 1월 31일자 24면에 게재된 화순5차 한국아메리움 센터부지조 모집공고 내용 중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아 래 -

구분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모집주체		화순상원리지역주택조합 위원회		정명석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8, 2층(중앙동)			
주택형	종별	세대수	분담금종액	가입신청금		중도금 (60%부이자)	전금(입주시)		
				1차	2차				
84㎡입	4F	2F	10	263,900,000	10,000,000	20,000,000	158,340,000	60,560,000	
		3F	10	268,400,000	10,000,000	20,000,000	161,040,000	62,360,000	
		4F	10	272,900,000	10,000,000	20,000,000	163,740,000	64,160,000	
		5F~9F	50	277,400,000	10,000,000	25,000,000	166,440,000	60,960,000	
		10F~19F	50	281,900,000	10,000,000	30,000,000	169,140,000	57,760,000	
		20F~29F	150	286,400,000	10,000,000	30,000,000	171,840,000	59,560,000	
		30F~38F	90	291,000,000	10,000,000	30,000,000	174,600,000	61,400,000	
		39F최상층	8	324,000,000	10,000,000	30,000,000	194,400,000	74,600,000	
		합계		378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향정리 152-1번지(화순5차 한국아메리움 주택조합부)

구분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모집주체		화순상원리지역주택조합 위원회		정명석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층로 140			
주택형	종별	세대수	분담금종액	가입신청금		중도금 (60%부이자)	전금(입주시)		
				1차	2차				
84㎡입	4F	2F	10	263,900,000	10,000,000	20,000,000	158,340,000	75,560,000	
		3F	10	268,400,000	10,000,000	20,000,000	161,040,000	77,360,000	
		4F	10	272,900,000	10,000,000	20,000,000	163,740,000	79,160,000	
		5F~9F	50	277,400,000	10,000,000	25,000,000	166,440,000	75,960,000	
		10F~19F	100	281,900,000	10,000,000	30,000,000	169,140,000	72,760,000	
		20F~29F	100	286,400,000	10,000,000	30,000,000	171,840,000	74,560,000	
		30F~38F	90	291,000,000	10,000,000	30,000,000	174,600,000	76,400,000	
		39F최상층	8	324,000,000	10,000,000	30,000,000	194,400,000	89,600,000	
		합계		378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층로 140(화순5차 한국아메리움 주택조합부)

돈되는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서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 봄.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2월 28일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수 강 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공고 제2020-01호

부동산 매각공고

1. 매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11-14 외 7필지		
대 지	111-14, 112, 112-19, 112-20, 114-5, 190-12, 112-31, 116-16	7,693.0㎡	총 8필지
건 물	본관	26,097.57㎡	지하3층~지상12층
	별관 (주차빌딩/스튜디오/창고)	6,056.03㎡	지하1층~지상8층

2. 매각가격 : 20,700,000,000원

3. 매각일정

구분	내용	비고
입찰일	2020년 2월 27일(목) 09:00~16:0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0년 3월 06일(금)	
매매계약	입찰가격의 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5일 이내 계약금납부 및 매매계약 체결
잔금납부	입찰가격의 90%	매매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잔금 납부

기타사항
· 입찰가는 매각기준가격 이상시 유효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수익계약방식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 유의사항

-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이며, 현재 매도인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단, 방송기자재 시설 폐기는 관련법에 의해 매도인이 책임집니다.
- 매도인은 입찰 참여자가 제출한 입찰서류 상의 매입 금액, 자금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독자적인 판단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후 우선협상대상자는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그와 동시에 매각 대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약정된 기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별도 통보 없이 즉시 상실됩니다.
- 매도인은 매각 대상 자산을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의 상태로 매수인에게 매각하며, 매각 대상 자산의 물리적 하자를 포함하는 물리적 상태, 공부상의 기재와 실제 상태의 일치 여부에 관하여 진술보장을 제공하거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매도인은 본건 거래와 관련한 일정 및 내용 등 사전 통보 없이 변경,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여자가 제출한 입찰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입찰 절차를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안내사항 및 문의 : (주)광주방송 경영국 (Tel. 062-650-3052)

(주)광주방송 대표이사